한국노총전남본부가 주최하고 전남도 노사민정협의회가 후원하는 '고용환경 개선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추진사업 우수기업 탐방'은 보다 나은 고용환경을 만들고 그 토대위에서 근로자들의 안전한 근로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기업의 발전과 생산성 향상은 개인의 발전은 물론 고용환경개선에 기여함을 인식하도록 집중 홍보 및 캠페인 활동으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산업평화를 이룩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노사 상호 존중과 배려, 공동의 노력과 협력을 통해 비정규직,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차별해소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전개로 노사관계 안정 및 발전을 위해 전남지역 노사민정 참여와 협력한 사례를 집중 부각함으로써 건전한 노사문화를 확립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믿는다.
기업들의 고용환경 개선과 안전한 일터 제공은 궁극적으로 업무효율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모든 사업장이 고용환경 개선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같은 사업을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우수기업을 찾아간다.〈편집자 주〉

# 설립 15년 '전남 행복시대' 여는 공기업 성공모델 된다

## 전남개발공사

### 지역 인재 채용 위해 매년 정원의 3% 이상 정규직 채용
### 지역경제 활성화 · 균형발전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충실
### 도민 삶의질 향상 통해 공공성 강화로 사회적가치 실현

올해 설립 15주년을 맞는 전남개발공사는 전라남도 산하의 유일한 공기업이다.

지난 2004년 6월 14일, 지역 발전과 도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전라남도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하였다. 설립 초기 자본금 50억 원에 불과했던 전남개발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자산 1조 7백억 원에 육박할 만큼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도시개발공사 중 일곱 번째 규모다.

현재 총 21개, 1조 4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모델을 다각화하여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한편 도민 행복을 위한 공공성 강화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중점을 다하고 있다

**◆ 지역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사람 중심' 개발**

전남개발공사의 주력 사업은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개발이다. 남악신도시, 기업도시 삼포지구, 장성행복마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등 굵직한 사업들을 진행해 왔다.

대표적으로 남악신도시는 전남도청을 비롯한 43개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약 3만 8천명의 인구가 이주하면서 어엿한 중규모 도시로 자리 잡았다. 현재 진행 중인 오룡택지지구가 마무리되면 약 6만 명이 살아가는 전남 행정복합도시가 완성될 것이다. 오룡지구는 사람중심의 'Walkable City'를 모토로 자동차로부터 안전하고, 숲 속을 걷는 듯한 친환경 도시로 조성된다. 녹지축을 따라 이어지는 논스톱 보행자 산책길과 차로를 건너지 않는 안전통학길, 보행약자를 위한 안전한 도시를 구현한다. 2019년 말 1단계(700천㎡) 사업이 준공되고, 2024년까지 전체 사업이 마무리 될 계획이다.

또한 전남개발공사는 남악신도시에 이어 여수시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역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배우도시로 5,776세대 1만 4천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친환경 자족도시(면적 979,165㎡)로 조성될 예정이다.

분양률이 30%대로 저조했던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기업 수요에 맞는 유치업종 변경과 투자부담경감을 위한 지원제도 등으로 입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강진산단은 올해 상반기 내 100% 분양될 것으로 예상되며, 장흥산단도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면서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전 공대를 유치하고, 에너지 중심 특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나주 지역에 신규산업단지 개발을 준비 중이다.

앞으로는 대규모 개발을 필요로 하는 인구유입 여건이 없는 상황을 감안해 도내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발 수요에 따른 중소규모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규모도시개발의 방향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친환경 생태도시, 첨단기술(IOT)로 주거·에너지·교통 등 도시기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도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함으로써 지역현안까지 해결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협력도시가 될 것이다.

**◆ 꿈의 자원, 신재생에너지로 여는 새로운 세상**

전남개발공사는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인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한 '도민 발전소'를 건립 및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여수율촌산업단지 내 제1호 도민 발전소를 시작으로 나주시 노안면에 제2호 도민 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이며, 추가적인 후보지를 발굴하고 있다. 태양광 도민 발전소는 지역 주민이 직접 발전사업에 투자(펀드형)하여 배당 수익금을 받기도 하고, 전남개발공사가 발전 수익금 일부를 도인재육성기금에 기탁함으로써 도민의 소득창출과 지역 인재육성기반 확충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해 5월, 지방공기업 최초로 국가연구개발(R&D) 과제인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R&D 사업에 선정됐다. 이를 계기로 영광군 해역에 300MW급 국가 해상풍력 단지를 개발하고자 해상계측기를 설치하는 등 2022년 상업발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1년에는 영광 약수에 있는 4.3MW급 풍력발전기 1기의 시범상업발전을 개시할 예정이다, 완도에서도 300MW급 해상풍력단지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국가에너지전환정책'에도 이바지하면서, 조선산업 등 지역산업 연관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크다는 판단 아래 중·장기적인 미래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남개발공사의 아름다운 동행**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는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 배려, 지역 공동체 복원 등 현재 공공부문의 화두인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지방공기업 최초로 사회적 약자기업 가산점 부여, 사회 소외계층 기부실적 우대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편견 없는 채용을 위해 블라인드 채용을 지난 2016년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지역의 우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매년 정원의 3% 이상 정규직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자회사까지 포함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100% 완료하였다.

또 지방공기업에서는 유일하게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인권경영 선도기관으로 선정돼 한국철도공사, 국립중앙의료원 등 약 60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업무 전파를 실시하는 등 인권경영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행복 나눔과 참여를 통한 전남 행복시대 구현'이라는 사회공헌 비전을 세우고, '사회공헌추진단'을 구성 다양한 나눔문화와 지속적인 사회공헌에 기여하고 있다. '도민이 제안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주제로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

신봉우 기자

## "소외계층 우대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해 최선"

### 김철신 사장

**▶사장 취임 9개월여째를 맞이했다. 소감과 평가는?**

-지난해 9월 10일 취임 후 약 9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 소통과 협력강화, 사회적 가치 실현 확대를 위해 현장 위주 경영과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직원들과의 소통과 노조와의 상생을 위하여 사장실을 개방하여 언제든지 직원들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사랑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시적인 직원들과의 번개모임을 통하여 사업 및 조직에 대한 의견과 고충을 듣고 이를 풀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직원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용활성화를 통해 2019년 일자리창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그 비결을 든다면?**

-우리 공사는 지난 3일 서울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년 상반기 지방공사·공단 CEO 리더십 포럼에서 '일자리창출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한 결과 인력충원의 필요성에 따라 2회에 걸쳐 모두 10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 사회초년생이 안정적인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경험 및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7명의 지역인재를 선발하였고, 올해 1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 전반기에 2명을 채용하였으며, 하반기에는 7명 정도의 신규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유일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실현에 어떻게 앞장설 것인가?**

-우리 공사는 지방공기업 최초로 사회적 약자기업 가산점 부여, 사회 소외계층 기부실적 우대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편견 없는 채용을 하고자 입사지원서나 면접에서 나이, 학력, 가족관계, 신체조건을 기재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선제적 도입하여, 지난해 전국지방공사 중 유일하게 '블라인드 채용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하여 매년 정원의 3%이상 정규직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의 경우 상반기 6명, 하반기 4명을 채용하는 등 지역의 고용률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부패, 청렴을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은?**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내부2, 외부2)을 받았으나, 2019년에는 청렴도향상을 위해 전직원이 참여하는 청렴현장 문화체험을 실시(4월 장성 평생교육원, 5월 강진 다산박물관)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 및 외부만족도(계약고객, 토지보상고객) 향상을 위해 매월 청렴 모니터링을 통해서 취약한 분야를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전남·광주지역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공동으로 청렴정책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 '빛가람 청렴실천 네트워크' 27개 기관과 같이 청렴협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노사 관련 미담사례를 소개한다면**

-노사 문제에 있어서 저희 공사는 창립이후 단 한차례의 마찰도 발생된 적 없는 무분규 사업장입니다. 노사 간 상생·협력으로 지역공동체 동반 성장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사 사회적 책임실천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함께하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행사를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한 달에 한번 '치맥데이'를 진행하여 노·사가 한자리에서 편하고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의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공사 설립 15주년을 맞이하는데 전남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6월 14일은 2004년 공사가 설립된 이후 1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설립초기 50억 원에 불과했던 자본금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 1조 7백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6개 광역 자치단체 도시개발공사 중 일곱 번째 규모로 비약적인 성장을 한 것입니다.

항상 공기업의 근본을 잃지 않고 도민들을 생각하며 '함께 행복을 나누고', '함께 밝은 미래를 만드는' 도민의 동반자가 되도록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도민과 상생하는 업무추진으로 전남 행복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신봉우 기자